



하나금융·소진공·소공연, 동네슈퍼 착한계란 공급

하나금융은 지난 4일 서울 명동사옥에서 소진공·소공연과 '동네슈퍼 착한계란' 공급을 통한 물가안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 권혁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하나금융그룹



유한양행, '자원순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유한양행이 지난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유공 단체로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유한양행 최용 팀장, 이상호 상무(왼쪽 첫번째, 두번째)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양행



한화에어로, '히어로즈 아카데미 캠프' 마무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보훈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경남 거제와 창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히어로즈 아카데미 캠프'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생과 가족 등 47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주제로 진로 탐색 등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보, 전북 미래산업 대도약 위한 금융지원 나서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4일 전북 전주 농협은행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북 미래산업 대도약을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 2번째부터) 기보 김태주 호남지역본부장, 농협은행 장길환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부음 ▲서정화 씨 별세, 이재철(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본부장)씨 모친상=6일, 보람여주장례식장 1층 특실, 발인 8일. 031-885-1919. ▲김희태(전 국무총리실 전문위원)씨 별세, 김준호(전 대한광업진흥공사 탐사부장)·김군호(전 에프앤가이드 사장)·김은숙·김은경·김은국·김은성 씨 부친상, =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6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8일. 02-2258-5940. ▲박정부씨 별세, 박성근·박민정·박현정(세계일보 편집부 미술팀)씨 부친상=6일 오전 4시,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발인 8일. 02-2227-7500. ▲이기봉(전 연기군수)씨 별세, 권영봉(전 세종우리신협 상임이사)씨 남편상, 이강혁(사업)·이강옥(비즈워치 경영기획실장)·이광원(사업)씨 부친상=6일 오전 8시 50분, 세종연서농협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8일. 044-866-4444.

이장규 대표 “AI 분야 등 韓-베트남 동반성장 길 열어야”

〈메트로경제〉

제3회 국제금융협력 포럼

금융·자본시장 등 미래 먹거리 탐색
양국 교류 확대 필요성 공감대 형성

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메트로미디어 주최 '2026 국제금융협력 포럼'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 감사와 리스크관리 담당, 현지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 및 자본시장, 제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베트남 양국 협력 방안을 찾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다.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베트남 경제는 그 어느 곳보다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K-테크'·'K-컬처'와 젊고 역동적인 베트남의 강점이 결합한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은 장시간 외세를 겪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나, 분단의 아픔과 동족끼리 전쟁의 고통을 겪은 것이나 다시 우뚝 일어난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닮았다”면서 “이번 포럼이 금융·제조·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동반성장의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면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재경관은 축사를 통해 “베트남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40개(54개 점포) 한국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는 곳”이라며 “이번 포럼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지난 3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2026 국제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조성준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서영덕 신한카드 감사부장, 이순우 메트로경제 언론윤리실천위원장, 조성우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장, 이재면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재경관, 법체처 박광균 서기관, 이장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대표, 우리베트남은행 배태인 행장, 유영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스타트업센터 하노이 센터장, 이용만 저축은행중앙회 감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트로경제

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가는 뜻깊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시장은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자 미래 경쟁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 파트너 베트남은, 2024년 말 정치국 제57호 결의안 등 개혁정책을 통해 과학기술과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 돌파구로 선언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0%로 높이고, 전체 기업의 40% 이상이 혁신 활동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24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GDP의 약 18.3%를 차지했고, 전자상거래 시장은 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5G 상용화와 온라인 공공서비스 확대도 본격화하고 있

다. 2025년 세계식량재산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에서 베트남은 139개국 중 44위, 중하위소득그룹 중 2위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양국이 함께 만드는 혁신' 관계로 진화한다는 구상이다.

조성우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소장은 '베트남 금융산업의 특징 및 최근 동향'이란 주제 강연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다”면서 “'K-금융' DNA를 현지에 심는다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영토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영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스타트업센터 하노이 센터장은 “베트남 경제는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다. 중국의 사업 환경 악화 때문에 업체들이 베트남에 쇄도하고 있고, 동남아 다른 지역과 생산성이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유연한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한국보다 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 금융협력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과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7년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민간 협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논의했다. 또한 관광산업, 문화 콘텐츠, 국제 스포츠 이벤트, 기업 투자 및 사업개발 분야에서의 기회와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유통업계, 명절 앞두고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중소 협력사 유동성 확보 지원

롯데·신세계·현대백 등 3조 이상

추석 명절을 앞두고 롯데와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명절을 전후해 임금과 상여금,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1만 2000여 개 파트너사에 납품 대금 9495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건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홈쇼핑 등 27개 계열사가 참여해 당초 지급일보다 평균 8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롯데는 2013년부터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평상시에는 약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파트너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 계열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대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세계그룹도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SSG닷컴 등 3개사를 통해 중소기업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들 3개사는 지급 시기를 최대 12일 앞당긴 조기 지급분과 기존 거래 조건에 따른 정기 지급분을 합쳐 총 1조9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1만여 개 중소기업 협력사에 결제대금 2738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9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1일 지급한다. 대상 협력사는 지난해 추석 당시 약 9000곳보다 1000여 곳 늘었다.

유통업계가 명절을 앞두고 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상여금과 원자재 대금 등 비용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유통그룹들은 조기 대금 지급과 금융 지원 제도를 병행하며 협력사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SK·울산상의, 11일 ‘울산포럼’ 개최

‘제조업 AX·일상 속 AI’ 세션 진행

SK와 울산상공회의소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일상 속 AI 활용을 중심으로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SK와 울산상공회의소는 오는 1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Leading AX, Smart Life 울산’을 주제로 ‘2026 울산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울산포럼은 2022년 SK이노베이션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의

모태인 울산의 미래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인 SK그룹 회장의 제안에 따라 출범해 지역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협력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SK와 울산상의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울산시, 울산시의회,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과학대학교 등이 후원한다. 김상욱 울산시장과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SK 구성원과 기업·학계·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포럼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다루는 ‘Physical(피지컬) AI Wave, 제조 AX 대전환’과 일상 속 AI 활용을 살펴보는 ‘AI for Everyone, Smart Local(모두를 위한 AI, 스마트한 지역 울산)’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AI 기반 사회혁신 기업들도 패널로 참여해 공공·생활 분야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AX 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울산포럼과 연계한 ‘WAVE 2026(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도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SK그룹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통해 축적한 AI 역량이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과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서 선보인 (좌)한화의 불꽃.

/한화

한화그룹 서울세계불꽃축제 성료 시민 100만명 현장 찾아

한화그룹이 130억원을 투입한 서울세계불꽃축제에 100만여명의 시민이 몰렸다.

한화는 지난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한화와 함께 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가 안전하게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22화째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 첫 개최 이후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함께 멀리’ 신념에 따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축제를 확대해왔다.

김 회장은 올해 축제를 앞두고 “한화가 하늘 위로 불꽃을 쏘아 올리는 이유는 하늘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에 그 행복을 전하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안전한 축제 운영도 당부했다.

한화는 올해도 한화TV 등을 통해 축제를 생중계했다. 생중계 조회 수는 268만회,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26만명을 기록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